

초고령사회 노인의 경제적 배제 극복을 통한 인간관계만족도 증진 연구

김영철*, 이평화**

명지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특임교수*,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for Overcoming the Economic Exclusion of the Elderly in the Super-aged Society

Young-Chul Kim*, Pyung-Hwa Lee**

Special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배제를 논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관계망 확충을 통해 노인의 인간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경제적 배제를 극복하고 인간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그 대상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고연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배제의 극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관계망이 인간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주소비처가 쇼핑일수록,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할수록 인간관계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관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경제적 배제가 인간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가활동이 빈번 및 빈번 방문일수록, 사회관계망 이용처가 유료시설일수록 인간관계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활동과 사회관계망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사회관계망의 매개효과를 조사한 결과, 소득영역에서의 배제, 노동시장의 배제, 주거복지의 배제를 항목으로 하는 독립변수인 경제적 배제가 종속변수인 인간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에서 사회관계망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배제와 사회관계망은 인간관계만족에 영향을 끼치며, 경제적 배제가 극복되어 사회관계망이 개선될 때 비로소 인간관계만족도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초고령사회, 경제적 배제, 인간관계, 인간관계만족도, 사회관계망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discuss the economic exclusion of the elderly, which may be experienced in a super-aged society, and to propose a method to improve the interpersonal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rough the expansion of social networks in order to overcome this.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it suggests that the method of overcoming economic exclusion and improving human satisfaction requires a high interest in women in the subject, and the elderly, low-educated, It was found that it is urgent to overcome the economic exclusion of the low-income clas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social network on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more women, the higher the age, the more shopping, and the smoother communication with children, the higher the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economic exclusion on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more leisure activities visited relatives and relatives, and the more paid facilities used social networks, the lower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improvement measures for leisure activities and social networks are required.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ocial network, the social exclusion in the causal relationship in which the independent variable economic exclusion affects the dependent variable,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relational network was found to have a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conclusion, economic exclusion and social network affect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it was found that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improved only when economic exclusion was overcome and social network was improved.

Key words Super-aged society, Economic exclusion, Human relationship,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Social network

Received 01 Oct 2023, Revised 13 Oct 2023

Accepted 21 Oct 2023

Corresponding Author: Pyung-Hwa Lee
(Kyonggi University)

Email: welfare207@daum.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한국사회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문제의 원인이 되어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노인의 욕구도 다양화·복합화되고 있어서, 노인의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인복지가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이근홍, 2023: 13)[1]. 노인복지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노인의 빈곤, 치매, 학대, 자살, 여가, 일자리, 주거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노인복지가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문제는 노인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 사회문제화한지 오래이며, 사회문제화는 결국 노인에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노길희 외, 2023: 19)[2]. 즉,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에게 대한 경제적 배제를 극복하고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관계만족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에게 인간관계만족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노인이 초고령화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이론적 배경

2.1 고령화 현상

2.1.1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1970년 이래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수준의 증가, 의료서비스 확대에 의한 수명 연장 등 환경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송진영 외, 2020: 10)[3].

고령화(aging)라는 말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젊다’는 측면보다는 ‘나이 들다’라는 이미지가 강

하게 표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라고 지칭하는 말에는 개인의 고령화를 포함해 어떤 사회가 전체적으로 인구 고령화된다는 의미를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다(최세영 외, 2018: 11-12)[4]. 사전적으로는 고령화는 “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로 진행 또는 나아감”으로 정의된다. 고령화는 한국에서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인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UN 분류기준에 따라 각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령화사회란 인구구조의 변동을 나타내며, 사회적 고령화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 노인인구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2 초고령사회의 영향

인구 고령화로 인해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개인을 넘어 사회적 또는 국가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세영 외, 2018: 18-20)[4].

첫째, 특정 기간에 출생한 인구 집단, 즉, 베이비부머 세대의 출생과 교육, 직업 그리고 노후 등까지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내용이다. 특정 기간의 출생아 수가 이전이나 이후 연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켜 ‘베이비붐(baby boom)’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로 이 집단은 사회·경제 등에 대한 영향력이 큰 집단이었다(전명숙 외, 2021: 37-38)[6]. 2010년부터 대거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개인적 노후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지출될 비용과 그에 관련된 다양한 복지, 의료 등의 사회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이미 농어촌 및 산촌·시골 등 일부 ‘군’ 단위의 지역은 고령사회를 이미 지나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노인복지정책이 별로 많지 않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셋째,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불균형 문제이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그 인구가 절대적·상대적으로 훨씬 많다(임정문 외, 2020: 51)[7].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성노인의 증가이며, 그 대부분이 독거노인이다. 이는 남자의 평균수명보다 여자의 평균수명이 일반적으로 5~6년 더 길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노인집단에서 정서적 문제, 보호문제, 성문제, 재혼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넷째, 노인가구세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정과 편의성으로 인해서 노인단독세대가족(노인독신 또는 부부가족) 및 2세대 노인핵가족(노인+미혼자녀)가 크게 늘어났다. 한편 ‘노+노 세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회적 단위를 개인차원, 가족차원, 사회차원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3 초고령사회의 노인문제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인문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남일재 외(2020: 130)[8]는 초고령사회의 노인문제로 빈곤문제, 건강문제, 역할상실과 소외, 노인학대 등을 말한다.

이근홍(2023: 21-25)[1]은 노인문제로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 노인치매, 노인학대, 노인자살 등을 주장한다.

전명숙 외(2021: 39-44)[6]는 노인문제로 노인 빈곤, 노인질병, 고독감과 우울, 노인주거, 노인 자살, 노인학대, 노인치매 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노인문제는 사회문제로 연결된다. 특히 한국사회의 고령화현상은 세계 다른 나라보다 초고령사회 진입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국가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전명숙·김기명은 한국사회의 고령화 문제로, 조세부담의 증가, 경제적 부담, 노인부양 및 가족의 부담, 의료비와 연금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전명숙 외, 2021: 39-44)[6].

2.2 노인의 경제적 배제

2.2.1 사회적 배제의 하위영역

경제적 배제는 사회적 배제에서 파생되는 데 사회적 배제의 하위영역으로, 강현정(2009: 80)[9]과 강현정·김윤정(2011: 323-334)[10]은 경제적 배제, 근로 배제, 주거 배제, 사회활동 배제, 건강 배제, 교육 배제 등으로 분류한다. 김안나(2008: 65-67)[11]는 소득, 노동, 의료, 주거 등으로 분류한다. 박현주·정순돌(2012: 1070-1071)[12]은 사회관계망, 문화 및 여가 활동, 의료 서비스 접근, 재정적 안전, 정서적 배제 등으로 분류한다. 이희연(2009: 298-305)[13]은 배제 전환적 사건, 일상적 배제, 미래의 안녕으로부터의 배제, 심리적 안녕으로부터 배제, 사회 구조적 배제 등으로 분류한다.

2.2.2 노인의 경제적 배제 요인

경제적 배제는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안정이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조사된바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기 이후 경제적 성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목표로 삼는 사회풍조가 조성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 약자인 노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적 대우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노인의 경제적 배제 요인으로 다음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2.2.2.1 빈곤

‘빈곤의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노인빈곤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빈곤(poverty)은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빈곤층(a profile of ‘the poor’)'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대체로 특정 집단, 즉 아동, 고령자, 여성, 소수민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Giddens, 2017: 496)[14]. 경제적 배제는 주로 빈곤 및 하층계급, 적절한 고용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자원의 보존과 관련되며, 이것은 또한 빈곤과 경제활동 참여(노동시장 참여)와 연관이 된다. 현대에 들어서는

노인 빈곤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노인은 빈곤상태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노인의 빈곤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노인의 빈곤율은 일반 인구층의 빈곤율보다 높은 편이다(노병일, 2018: 107-108)[15]. 통계청(2022a: 35)[16]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2.2 노인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통계청(2019: 24)[17]에 따르면, 2018년 노년부양비는 19.6명인데, 65세 이상 고령자 1명에 대해서 생산가능인구 5.1명을 부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하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지는 만큼 노년부양비 증가 속도 역시 빨라져 2060년에 82.6명으로 전망된다. 노령화지수는 0~14세에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이며, 2016년 100.1명, 0~14세 인구를 초과하여, 2018년에는 110.5명으로 나타났다. 노령화지수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2060년에 현재의 4배 수준 434.6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생산인구 비율을 저하시켜서 노령과 관련되어 노인부양비와 의료비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이 사회문제화 되어 노인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2.2.3 공적연금 수급률

통계청(2021a: 34)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고령자의 절반 이상(53.1%)이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 여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남자(72.6%)의 약 53%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74세 노인의 연금 수급률은 61.8%로 가장 높았으며, 65~69세 61.5%, 75~79세 55.1%, 그리고 80세 이상 30.2%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공적연금 수급률은 남자 72.6%, 여자 38.2%에 불과하여 이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빈곤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며, 고령층에 갈수록 빈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2.4. 최저주거기준

통계청(2021: 42)[18]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고령자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1.2%p 낮았다.

결론적으로 일반 가구보다 고령자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에서 1.2%p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배제 면에서 노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3 노인의 경제적 배제 내용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인 경제적 배제의 하위요소는 소득, 노동시장, 주거 등이 있다. 이를 노인복지 측면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2.2.3.1 소득영역에서의 배제

현대산업사회에서는 노인 자신이 게으르거나 사리분별의 부족과 같은 성격적인 결함이나 도덕성의 결여 등과 같은 개인적인 과오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노화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정년퇴직이라는 인위적이고 사회적인 제도, 노년기 이전의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한 노년기 때의 경제적인 준비 부족 등 사회의 여러 가지 제약이나 여건들에 의해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다(이난희, 2019: 10). 다시 말해서, 노년기에는 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회적 배제가 실재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2021: 31)[18]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경우 저축의 비중은 14.2%로 타 연령대에 비하여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실제 소득에서 매우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2.2.3.2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노인복지에서 소득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진입은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노년기 생산성 약화라는 고정관념이 매우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인력활용을 등한시한다거나 이를 기피하는 풍조가 꽤 만

연되어 있다. 이는 노년기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든스(Giddens, 2017: 544)[14]는 “개인들에게 노동은 적절한 소득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핵심적인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시장(labour market)에서의 배제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배제, 즉 빈곤, 서비스에서의 배제,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

2.2.3.3 주거복지에서의 배제

노년기 주거문제와 주거보장의 관심부족과 더불어 노년기의 경제 및 건강 수준의 약화, 높은 주택가격, 가족의 동거부양기능 약화 등으로 노인들은 심각할 정도로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기든스(Giddens, 2017: 545)[14]는 “사회적 배제의 성격은 주거영역(housing sector)에서 명확히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산업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넓은 집에 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비좁고 난방이 안 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한다. 특히 가족 중 성인이 실직했거나 저임금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등 열악한 환경으로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경우에는 퇴직이나 실직으로 인하여 주거로부터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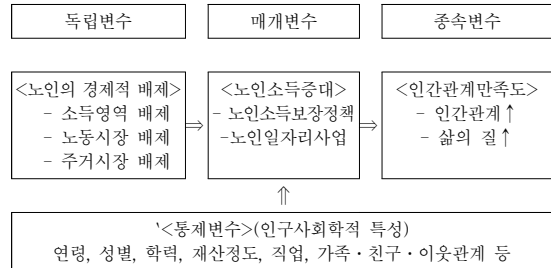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 노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을 매개효과로 하여 인간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범위는 서울지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300~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 25개 구에서 조사자가 편의추출방식을 채택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3.2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모형



3.3 연구가설

[연구가설 1] 노인의 경제적 배제 현황은 노인의 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노인의 경제적 배제 현황은 노인의 인간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노인의 소득증대는 인간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노인의 소득증대는 노인의 경제적 배제 현황과 노인의 인간관계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배제가 인간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선성 진단결과 VIF 값이 모두 10 이하였고, 공차 한계는 모두 .10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배제가 인간관계만족도를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1.3%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는 F값은 237.983($p < .001$)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영역배제($\beta = .761, p < .001$), 노동시장배제($\beta = .107, p < .01$)는 인간관계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영역배제와 노동시장배제가 높을수록 인간관계만족도도 높은

〈표 2〉 경제적 배제가 인간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	
		B	S.E				β	허용 오차
인간관계 만족도	(상수)	1.312	.153		8.564	.000***		
	소득영역 배제	.720	.034	.761	21.025	.000***	.982	1.018
	노동시장 배제	.115	.039	.107	2.949	.003**	.982	1.018
R ² =.613, adj.R ² =.610, F=237.983*** (p=.000)								

p<.01, *p<.001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한국사회는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있다. 초고령화사회의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노인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배제가 사회관계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배제가 높을수록 사회관계망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배제를 극복하고 인간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그 대상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고연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배제의 극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관계망이 인간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주 소비처가 쇼핑일수록,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할수록 인간관계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여가활동이 친지 및 친척 방문일수록, 사회관계망 이용처가 유료시설일수록 인간관계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활동과 사회관계망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경제적 배제가 인간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쇼핑이 주 소비처일수록 인간관계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여가활동이 친지 및 친척 방문일수록, 사회관계망 이용처가 유료시설일수록 인간관계만족도가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사회관계망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배제도 똑같은 항목에서 인간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활동과 사회관계망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사회관계망의 매개효과를 조사한 결과, 소득영역에서의 배제, 노동시장의 배제, 주거복지의 배제를 항목으로 하는 독립변수인 경제적 배제가 종속변수인 인간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에서 사회관계망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배제와 사회관계망은 인간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며, 경제적 배제가 극복되어 사회관계망이 개선될 때 비로소 인간관계만족도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 [1] 이근홍(2023). 『노인복지론』. 경기: 지식공동체.
- [2] 노길희(2023). 『노인복지론』. 경기: 지식터.
- [3] 송진영 외(2020). 『노인복지론』. 경기: 지식공동체.
- [4] 최세영(2018). 『노인복지론』. 경기: 정민사.
- [5] 박종란(2020). 『노인복지론』. 서울: 교학도서.
- [6] 전명숙 외(2021). 『노인복지론』. 서울: 동문사.
- [7] 임정문 외(2020). 『노인복지론』. 서울: 동문사.
- [8] 남일재 외(2020). 『노인문제론』. 경기: 지식공동체.
- [9] 강현정(2009). “노년기 사회적 배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강현정·김윤정(2011).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 323-334.

- [11] 김안나(2008).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12] 박현주·정순달(2012).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영국 고령화패널(ELSA)분석”. 『한국노년학』, 제32권 제4호 : 1063-1086.
- [13] 이희연(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1호 : 281-315.
- [14] Giddens, A(2017). Sociology. Cambridge: Polity Press.
- [15] 노병일(2018). 『사회문제론』. 서울: 창지사.
- [16] 통계청(2022). 『2022 고령자통계』.
- [17] 통계청(2019). 『2018 고령자통계』.
- [18] 통계청(2021). 『2020 고령자통계』.
- [19] 김근홍 외(2014). 『사회문제론』, 서울: 신정.
- [20] 이난희(2019). “한국 여성노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 평 화(Lee, Pyung Hwa)



- 2012년 2월: 서울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6년 2월: 서울기독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09년 6월~현재: 참편한장수요양원 대표
- 2018년 3월~현재: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노인복지, 심리상담, 다문화, 푸드아트
- E-Mail: welfare207@daum.net

김 영 철(Kim, Young Chul)



- 2019년 2월: 강서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22년 2월: 순복음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사회복지학과 박사
- 2023년 10월 현재: 서울시공동모금회 배분심사위원
- 2023년 10월 현재: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회장
- 2021년 3월~현재: 명지대학교 복지경영학과 특임교수
- 관심분야: 사회복지, 노인복지, 복지정책, 의료복지
- E-Mail: sunhan117@hanmail.net